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26.(금)

박진 장관,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접견

-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 -
- 북한 인권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관심과 협력 당부 -

박진 외교장관은 5.26.(금) 방한 중인 차히아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을 접견하고, 인권·민주주의 협력,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엘벡도르지 위원은 몽골 총리를 2회(1998년, 2004-2006년), 대통령을 2009-2017년간 역임(2013년 재선) / 2018년부터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위원 자격으로 방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몽골과 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북한 내 공개처형, 자의적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역할을 당부하였다.

엘벡도르지 위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면담 사진. 끝.

담당 부서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책임자	국제기구협력관 이 철 (02-2100-7224)
		담당자	사무관 조현선 (02-2100-7261)